

용산참사 배후에 핏빛개발 삼성이 있습니다

살인개발의 잔악무도함을 보여준 용산참사

지난 1월 20일 용산에서 벌어진 철거민 살인진압 참사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살인개발의 잔혹한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수년간 장사를 해오며 생계를 이어오던 삶의 터전에 어느날 갑자기 들이닥친 개발바람은 여기는 삼성 땅, 여기는 포스코 땅, 여기는 대림 땅이라며 제멋대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순식간에 삶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살인개발에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망루에 오른 용산4구역 철거민들은 단 하루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는 이것이 사인간의 분쟁에 불과하며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위해 폭력을 저질러 참사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오며, 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철거민과 범대위를 탄압하는 데만 집중해 왔습니다. 참사가 일어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러한 정부의 태도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돌아가신

철거민 열사들은 아직까지 냉동고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용산참사 배후에는 삼성이 있다.

용산 4구역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은 용산 4구역의 모든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호람건설, 현암건설에 51억 원의 계약을 맺고 철거용역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들 거대 시공사들은 개발조합을 대신해 용역업체를 직접 관리, 감독해왔는데 이 두 용역업체는 경비업법 상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불법업체입니다. 대기업이 공공연하게 불법철거를 지휘한 것이며 더욱이 이들에게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철거 공사를 완료하도록 한 것은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용산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날이 2008년 5월 30일이었으니 불과 한 달 만에 모든 건물을 부수고 공사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급해진 용역업체들은 주민들의 이주를 종용하기 위해 폭력적인 협박을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기한 내에 철거

를 완료하지 못하면 하루 510만원씩 지체보상금을 조합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용산4구역의 도급계약서에는 시공사들이 살인적인 강제철거와 관련해 분명한 책임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건설재벌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

가난한 주민들을 일시에 몰아내는 막가파 개발의 근원에는 탐욕스러운 건설재벌들이 있습니다. 6-70년대 도시재정비와 산업화 과정에서 비대한 건설재벌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규제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2007년 말 건설시장 규모는 182조원, 건설업체 수는 6만 7,607개에 달합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평균 19.2%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삼성, 용산개발 이익 1조 4천억

용산 4구역은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의 일부이며 여기에는 GS,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금호, SK 등 웬만한 건설재벌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삼성물산 기업 한 곳이 얻는 이익은 무려 1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대우증권 2008.8.21). 실제로 2001년 초대형 개발 사업이 발표되면서 용산 4구역 땅값이 무려 10 배가 치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의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이익을 남기는가. 미친 듯이 펼쳐지는 개발 경쟁은 마치 스포츠게임처럼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많이!라는 구호를 표방합니다. 눈이 돌아가는 광고로 소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하는 한편,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용역업체를 통해 원주민들의 삶터를 자신들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갈아엎어버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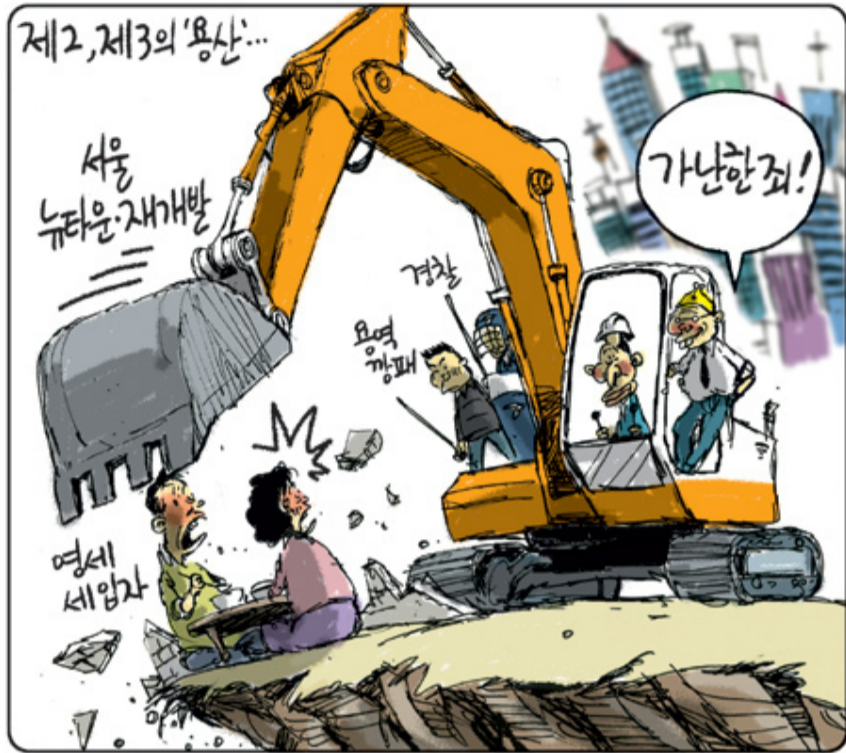
그들만의 폭주를 멈추게 하자

투기를 통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재벌의 막가파식 개발, 이들의 탐욕에 밀려나는 주민들. 이제 그들만의 폭주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용산참사의 진정한 해결이재, 제 2의 용산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용산 살인진압, 살인개발 주범 삼성자본 규탄대회
2009. 12.14(월)~18(금), 매일 12시 강남역 5번 출구앞

노동자/철거민 피로 세운 삼성자본 규탄한다!!

2010년 제 2의 용산참사를 막아야 합니다



▲ 경향신문 만평 09.01.27

또 다른 용산참사 예견하는 서울시 '개발시한폭탄'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수많은 뉴타운 재개발지역에서 철거민들이 눈물과 분노로 저마다의 망루를 쌓고 있습니다. 35개의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를 포함한 299개의 재개발과 266개의 재건축 구역 등 1천여 개발구역의 뇌관을 품고 있는 서울시는 7·80년대

개발독재정권을 포함해서 30여년간 이루어진 서울 도심의 개발 면적의 2배에 이르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면적의 개발을 불과 몇 년 안에 추진하고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 곳곳이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예견하는 '개발시한폭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집 없는 자, 서울을 떠나라! 집 있어도 돈 없는 자 서울을 떠나라!

뉴타운·재개발에 있어서 표면화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쟁점은 바로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입니다. 개발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이 20%미만이라는 현실은,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개발의 근본적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개발지역에 73%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은 당연히 삶과 생존을 유지하던 동네를 떠나야 하는 것이고, 가옥주도 높은 추가 부담금을 감당할 돈이 없으면 살던 동네를 어쩔 수없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던 곳을 떠나긴 떠나야 하는데, 서울 전 지역이 공사판이라, 한마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 남아 있자니, 용역깡패의 폭력에 시달려야 합니다. 본격적인 철거가 진행되기도 전부터 재개발 지역은 용역들에 의한 일상적인 위협과 폭력이 난무하는 치안부재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2010년, 개발광풍이 몰려온다

참사 직후, 참사의 근본원인이 무분별한 재개발정책에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 여야정치권에서 재개발 제도

의 개선을 이야기하며, 일부 법·제도를 세입자 대책 강화라는 이름으로 개정했지만, 개발지역 철거민들은 여전히 주거권과 생존권을 외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선되었다고 포장된 정책들은 하나같이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들이며, 오히려 보상대상 세입자 축소 등 세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후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히려, 2010년부터 집중될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로 2008년 대비 3배의 주택이 철거될 예정이어서, 개발사업의 진행은 제도 개선을 방패삼아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흑자는 다섯 명이 죽어 나갔는데도, 세입자대책이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에서, 이제 개발세력들은 더욱 활개를 치며, 살인개발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용산참사 해결하고, 살인개발 중단하라

그러나 우리는 절망만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사람은 없고 자본만을 위한 폭력적인 개발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산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통해, 더 이상의 강제철거, 더 이상의 죽음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모이재민 용산참사 해결, 우리의 힘으로

- * 매일 저녁 참사현장에서 추모미사와 매주 주말 추모대회가 있습니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신 내용은 사진으로 남겨 용산범대위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 *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모금 계좌: 농협 067-02-302163 / 국민 295401-01-156716 (이중회)]

오세훈 시장은 살인개발 책임지고, 용산참사 해결하라

용산철거민, 시청앞 노숙 농성 150여일...

용산 철거민들의 죽음의 원인은 이명박 정권에 의한 경찰의 무자비한 살인진압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고품격, 명품도시로 만든다며, 개발지역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책 없는 살인개발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8일부터 용산 4상공철거민들이, 생존권 쟁취와 서울시 살인개발을 규탄하는 노숙농성을, 서울시청 별관 입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숙농성 이후로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들을 보내고, 메서운 겨울 바람이 불어대지만, 철거민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노숙농성은 계속되어 150여일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철거민 열사들의 염원이었던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힘겨운 노숙투쟁에 많은 지지와 연대바랍니다.

“용산참사 해결하라” 나는 1인 시위 중

노래 부르면서

집에 가는 길에

“용산참사 해결하라!”

지난 10개월간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 참여 방법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1인 시위를 더 많은 분들의 참여로 이어갔으면 합니다. <나는 1인시위 중>에 지금 참여하세요.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를 사진으로 남겨서 용산범대위 사진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되는 1인 시위로 추운 겨울을 이겨냈으면 합니다.